

만남

09

2022
통권 583호





제44차 청년부 하기 선교 봉사...“충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Run On,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질주

청년부(부장 홍영남 장로) 제44차 하기선교 봉사가 지난 16일(화)부터 4박 5일간 충남 홍성, 보령 일원의 3개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봉사를 앞두고 석 달간 릴레이 금식기도,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졌다. 8월 14일 주일 찬양예배 때 발단예배에서 단기 수여식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전심 전력, 헌신 봉사를 외치며 봉사단 선서를 했다.

봉사활동은 교역자와 지도위원, 청년과 각 부 봉사자들 264명이 참여하여 이·미용, 연장 연마, 찬양집회, 의료 봉사, 워십 댄스 등 각 교회에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사역으로, 농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다. 수요일 홍성교회에서 드린 연합집회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뜨거운 영적 부흥의 자리가 되었다. 충남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귀하게 열매 맺기를 간구한다.

사진은 16일 출발을 앞두고 복음의 열정을 한마음으로 다짐하는 모습.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가을로 들어서는 마음 김운성

특집 04 신앙 성장과 영적 수련의 현장 속으로 교육부
08 심과 치유를 주신 놀라운 시간 이대근

땅끝까지 이르러 10 동영상 제작과 온라인 예배 송출방법 조원형
13 훈련을 통해 믿음 성장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서희석
14 복음 받아들이는 새언니, 할렐루야 김지연

다음세대 16 일상의 고민 나누며 함께 성장 방주
17 릴레이 금식기도로 하기 선교 봉사 준비 나광호
18 스포츠 동아리로 '소통의 장' 꿈꿔요! 이현지

기획연재 20 사도 빌립의 순교지 히에라볼리

특별기고 26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남윤재

영락의 울타리 29 함께 책 읽으며 상담효과를 높입니다 강승훈
32 올 여름 중등부에 생긴 일 광영진
34 충성된 종으로 구역을 섬기겠습니다 이일호
38 초보 구역장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도 황정숙
40 3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성규
42 이 악물기, 이갈이는 턱뼈 이상을 부릅니다 김가영

문화광장 46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 김윤기
47 춤 노윤영

교회소식 48 산상기도회 외
52 9월 목회력 /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지난 7~8월 열린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영·유아·유치부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방법을 체험하였고, 유·초·소년부는 '비교하지 않아요'를 주제로, 중등부는 '하늘에 속한 것'의 주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사진은 위로부터 유치부·초등부·중등부·유아부. (관련화보 4~7면)

가을로 들어서는 마음

김운성 위임목사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44)

9월을 맞이합니다.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6월에서 8월까지의 여름이고, 9월부터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월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여전히 더워서 여름인 듯하고, 아침저녁으로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니 가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9월을 맞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부하듯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을에 몸을 담그면서 아직 여름인 듯 즐깁니다. 가는 여름이 아쉬워서 그 끝자락이라도 붙잡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앞당겨 맞이하는 것입니다. 벌써 날이 춥기라도 하듯 땀을 흘리면서도 여름옷을 정리하고 가을옷을 손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에게만 가을이 빨리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은 이미 가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9월을 맞는 방식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에 대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기말고사가 다가와도 중간고사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중간고사 끝난 날의 흥분분함을 계속 맛보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기말고사가 곧 다가온다면서 대비합니다.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지만, 아직 청춘이라면서 은퇴 생각은 뒤로 밀어놓고 세월을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아직 젊은 데도 은퇴를 위해 노후 준비를 합니다.

세상사를 맞이하는 태도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연결되어 애써서 미래를 외면하는 태도가 그 하나요, 과감히 과거를 벗어나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과거에 한

과감히 과거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오신 것을 알아차리라”하셨습니다.

발을 놓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요, 다른 하나는 과거에 미련을 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익숙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후자를 강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2~33절은 계절을 두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지만,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 사회적 징조를 보면서 인자가 가까이 오신 것을 미리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에게서 이 지혜가 없었던 사람의 예를 찾으셨습니다.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은 그날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길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브루스 모힌니 목사가 쓴 『목사님 설교가 아주 신선해졌어요』를 소개합니다. 설교의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브루스 모힌니 목사가 설교 사역의 새로운 전기를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체험적으로 적어 내려간 책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평소에 은혜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예화를 메모하여 장기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 년 전부터, 적어도 여러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가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준비하는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의 마음과 기도와 눈물이 담기고, 깊은 말씀 묵상이 깔린 설교가 됩니다. 주일 저녁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주일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이와 촉박하게 시작하는 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미리 준비하여 맞이하길 원합니다.

9월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예표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던 노아처럼,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깨어 있는 종처럼, 다가올 황혼을 준비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2022년 가을을 진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살아갈 날도 그리 길지 않음을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만남**

신앙 성장과 영적 수련의 현장 속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교회학교의 대면 수련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무더위와 폭우로 기억될 올 여름이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신앙 성장과 영적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학교 여름 사역의 생생한 모습들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찾았다~ 하나님나라! (마가복음 1:15)

영아부 | 7월 2일(토)~3일(주일) | 영락교회



함께 신나게 찬양해요



말씀 듣고 만들기를 해요

유아부 | 7월 9일(토)~10일(주일) | 영락교회



음률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반 별로 말씀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 7월 16일(토)~17일(주일) | 영락교회



볼풀놀이를 통해 예수님 사랑 나누며 살아가기를 배워요

찾았다~ 하나님나라! (마가복음 1:15)



미술놀이시간도 즐겁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10상)

유년부 | 7월 22일(금)~24일(주일) | 영락교회



퀴즈도 풀고 말씀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



비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10상)

초등부 | 7월 29일(금)~31일(주일) | 강화 그레이스힐



예수님 사랑과 함께 살아가기를 익히는 야외활동을 했습니다



소년부

| 7월 29일(금)~31일(주일)
| 딱따구리연수원(경기 양주)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한편 물놀이와 수련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Things of Heaven (골로새서 3:2~3)

중등부 | 7월 29일(금)~31일(주일) | 박달재수련원(충북 제천)



중등부 비전트립

| 8월 10일(수)~13일(토) | 여수, 증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창세기 50:19~20)



첫째 날 저녁집회 기도 시간에 한 학생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고등부 | 7월 28일(목)~30일(토) | 충주 한마음연수원



쉽과 치유를 주신 놀라운 시간

- 설악산 추양하우스에서 열린 제10회 한가족 한마음 가족수련회

한가족 한마음 가족수련회를 알고 있었지만 딱히 참석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미 다녀오신 가정들이 한목소리로 가족수련회를 적극 추천해주셔서 고민해보게 됐다. 아내가 받아온 일정표에서 가족물놀이 시간을 보니 조금은 기대감도 들었다. 수련회 당일 아침, 먼저 오신 상담부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내해 주시는데 마음에 송구함이 들었다. 어릴 적 수련회 시절 봉사하시던 선생님도 보여서 그분들이 아직도 한 가정을 위해 봉사하시는구나 생각하며 만감이 교차했다. 출발 이전부터 많은 분의 기도와 헌신이 피부로 와닿았다.

여는 예배에서 이곳에 온 동안은 가족에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교역자나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강승훈 목사님의 인상적인 첫 멘트가 생각난다. 마음이 따뜻해지며 위로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예정된 시간에 도착한 추양하우스는 대학부 수련회 이후로 근 20년 만이었다. 전에는 목양관 같은 2층 집에 묵었는데 지금은 숙소가 너무나 잘 되어 있었다. 배정받은 숙소는 깨끗하고 안락했다.

가족물놀이 시간을 맞이하면서부터 내 마음의 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스태프분들께 몸과 마음을 맡기게 되었다. 송전해수욕장은 그리 붐비지 않았고 여름 태양은 강렬했지만 상담부에서 이미 몽골텐트며, 파라솔까지 다 준비해 주신 상태였다. 정말 아무 고민이나 수고 없이 놀기만 했다. 아이들도 깊은 물에 신나 보였다. 빠뜨린 물안경

을 찾는 핑계로 스노쿨링 장비를 끼고 아이처럼 물속을 헤엄쳤다. 허기가 느껴질 즈음 나와보면 찐 옥수수과 감자, 수박과 복숭아, 얼음을 띄운 커피를 내어주셨다. 진이 빠지도록 놀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짧은 낮잠을 누렸다. 여행 중 누군가가 운전해 주는 차에서 늘어져 자는 것도 오랜만이였다.

수련회 하면 저녁시간 집회가 떠오르지만 한가족 한마음 가족수련회는 추양하우스에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자유로이 드리도록 맡겨주셨다. 저녁 특강 시간에는 자녀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부모들은 집중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물놀이 후 노곤해지는 시간이었음에도 방윤주 교수님의 강의는 잠 많은 나를 끝까지 집중하게 만들었다. 부모 자녀 간의 애착 이전에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애착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날 이영미 전도사님의 강의에서는 가족 구





성원 모두의 MBTI와 가족별 솔루션까지 제공되어 서로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어린이용 MBTI 검사도 따로 있어서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성향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유익했다.

보통 집에 돌아가는 날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 아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삼시 세끼+간식+야식에, 상담부 장로님의 선물에, 찐 옥수수에는 왜 그리 맛있었으며 날씨는 어쩔 이리도 좋았을까. 의심 많은 나에게 씬을, 또 감사함을 알게 하려고 이런 수련회를 기획하시고 참여하게 하신 것이구나 싶었다.

여담이지만 마지막 날 물놀이에서 목사님이 아

무래도 더위에 지쳐 보이셔서 기도 후 몇몇 아버지들과 협력하여 바닷물에 살짝 시원하게 해드렸다.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자는 우리의 야심찬 제안에 이미 짐작하신 듯 시계를 풀어두고 오시는 목사님을 보며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신 골고디의 예수님이 떠올랐다. 이후 목사님께서서는 더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는데, 바닷물 입수 후 씻은 듯이 나았다는 간증도 들려주셨다.

다시 출발 전으로 돌아가 수련회를 주저하게 했던 수술을 돌이켜 본다. 상처가 바닷물에 덧날까 걱정했지만 믿음으로 실로암에 나아가 고침 받은 맹인의 눈처럼 상처 부위도 신기하게 아물어 있었다. 쉼만 바라고 온 수련회에 치료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신 상담부 교역자 및 스태프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끝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글을 마무리한다. **만남**



이대근 집사
서초교구
교육부 서기



동영상 제작과 온라인 예배 송출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3남선교회에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사역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지난 1999년 시작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무려 제22회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님과 영락교회 봉사자를 포함해 약 2,820여 명이 참여한 스테디셀러 사역은 바로 <인터넷 해외 선교봉사>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IT 기술과 전문지식은 선교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러시아, 이집트, 터키, 몽골, 일본, 베트남, 요

르단, 미얀마 등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땅에 순종하며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

23번째 맞는 올해는 인터넷 ‘국내’ 선교 봉사로 주님의 은혜와 감동의 스토리가 이어졌습니다. ‘교회여, 빛을 발하라!’를 제목으로, ‘국내 목회자와 함께하는 IT컨퍼런스’를 부제로 지난 7월 21일(목)~23일(토)까지 진행했습니다. 36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님이 교육받으시고, 총 55명의 영락교회 봉사단원이 참여해, 3일간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조원형 집사
중구·용산교구
제3남선교회 회장

금년 초, 제3남선교회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 하늘길이 막혀서 해외 봉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로 눈을 돌려 기도했습니다. 지난해 놓여촌교회 목사님의 편지 한 통이 선교부에 도착했는데, 온라인예배 송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간절한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

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통의 편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만능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동영상 예배의 제작 편집과 온라인예배의 송출 Tool을 잘 배워서 활용하시면 예배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랜선을 타고 성도님들 가정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PPT 제작, 동영상 라이브 방송제작 등을 배운 IT교육

첫째 날

아침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니 갑작스레 세찬 비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벽기도회를 마친 목회자들이 짝 막힌 도로를 헤치고 오셨습니다. 오전 11시 개강예배의 찬양이 뜨거웠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여” 이름을 더 높이 불렀습니다. 오후 2시 시작된 교육에서, IT미디어부 교육훈련팀 이성현 집사가 파워포인트에 관해 열강했습니다. 도형 및 폰트를 다루는 기본에서부터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통한 고급 활용 능력까지,

목회자님들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교보고서 작성에 자신감을 얻게 해드리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칠 즈음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셔서 본당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촬영하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Shine Jesus Concert’가 열리는 드림홀에서 동방현주 찬양사역자의 찬양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오후 내내 동영상 제작편집, 온라인예배 송출방법 강의와 함께 의료선교부에서 준비한 의료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IT강사는 우리 교회 IT미디어부의 자랑스러운 대치동 최고 인기 강사 부럽지 않은 현성인

목사님의 지도로 오전에는 무료 사용이 가능한 ‘뱍믹스’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설치한 후 성경 말씀의 사진을 불러와서 자막으로 넣고 ‘네이버 클로바노트’ AI녹음앱을 활용하여 성경 말씀 음성파일을 삽입해 동영상

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이들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봉사관 1층 의료선교부실에서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복부, 유방 초음파 검사와 혈압과 당뇨, 골밀도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의 금요기도회에 모두 참석해 주님과 의 첫사랑 감동을 회복하고 구

령의 열정도 회복하는 귀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종일 뻘뻘한 수업과 진료 중간에 만남 카페팀이 제공한 커피와 음료 서비스는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께 풍요로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주신 엘피스홀 팀에도 감사드립니다.

셋째 날

체리플랫폼 대표이자 우리나라 1호 스마트 선교사로 이름난 이수정 대표가 <스마트선교와 NFT>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대표는 심방 때 꼭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선사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성경과 찬송가 찾기입니다. ‘젯봇에게 메시지 보내기’라는 화면에,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5절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창세기 3:5]의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절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찾기도 쉽습니다. ~44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찬송가 442장 전문이 나옵니다. 악보 보기 버튼도 나오고 유튜브에서 듣기 버튼도 나옵니다. 신기하지요?

행사를 마무리하는 종강 예배에서는 참석하신 목회

자님과 선교사님들, 영락교회 봉사단원 모두가 되어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반석승전교회 이영애 목사님의 감사 메시지로 이 글의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신 3남선교회와 영락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은혜와 접대와 섬김을 기억하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



훈련을 통해 믿음 성장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만으로는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어 전도폭발 훈련 2단계에 임했다. 오래전 1단계를 수료한 바 있어, 암기에 대한 두려움 아닌 두려움을 안고 시작했다.

복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나 내용이 어색하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암기하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은 점차 사라지고, 말씀을 근거로 전개하는 과정이 논리적이어서 오히려 사고하고 받아들이는데 수월하고 최선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전도 대상의 특성에 따라 살을 덧붙이는 노력은 여러 예화를 익혀서 계속해야겠다.

우리 조가 함께 전도한 대상자 중에는 모태신앙이거나 기독교 배경이 있는 분들이 여럿 있었다. 이분들은 대개 사전에 마음의 준비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진심으로 받고, 복음 제시에 관해 고마워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깊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분은 기독교 용어 자체가 생소한 상태에서 복음 전도를 받고, 즉시 영

생을 선물로 받아들기에는 매우 난처해함을 보였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성경은 진리를 말 씀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성도의 생활을 간증하면서, 복음 제시의 전 과정을 진행했다. 전도 대상자는 모든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자 예화’에서 크게 공감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해주었다. 결신까지는 못 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4조는 더욱 합심하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통해 전도에 대한 더 큰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다. 멀지 않은 날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다.

예전부터 사랑하는 친척과 친지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나로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종교는 개인의 영역인데, 자칫 침범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미치니 도중에 용기가 꺾일 때가 많았다. 계속 기도하고 시간을 더 많이 내어, 반드시 영생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훈련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영생의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은혜를 주셨고, 훈련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논하고 배운 팀원, 그룹원, 이끌어주신 지도자분들과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낸 신앙공동체를 주셨음에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서희석 은퇴권사 _ 마포·영등포교구, 2그룹 2단계 4조

복음 받아들이는 새언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작년 9월 그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전도폭발 1단계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초신자로서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던 저는 1단계에서 많은 사랑을 경험하며 신앙과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그저 외우면 되는 것이라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는 약간 달랐습니다. 1단계 훈련생을 섬기고 이끌어야 하는 훈련자로 임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벅찼습니다. 아직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겨야 한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를 연단하고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말씀과 그래서 2단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훈련생도 직장 생활이 바빠서 시간 맞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줌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훈련 기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 훈련생의 91세 할아버지가 “영생의 선물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에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낙심되고 슬펐지만, 훈련생과 팀원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하루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시도록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하고 새로 거듭난 새신자의 마음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의 새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팀 전도 마지막 날 언니가 흔쾌히 허락해주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새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2년 동안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복음을 듣겠다고 하니 첫걸음을 뚫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오빠가 폐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열어서 역사하시리라 하는 믿음은 조금 있었지만 새언니가 과연 영생의 선물을 받고 결신할 지 의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 “난 믿음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했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큰 기대 없이 들어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줌>으로 초청해

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차분하게 간증을 시작하자 언니가 “아~” 하는 감탄사를 나지막이 내뱉으며 성의껏 듣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들어가자 울먹이며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흥분되어 준비한 카드도 떨어뜨리고, 잘하던 컴퓨터 PPT 화면을 원활하게 작동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기쁨의 마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겠느냐” 질문하자 언니는 울먹이며 “내가 받아도 되겠냐”하며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언니는 예비된 영혼이었구나하는 마음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정말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육까지 모두 마친 새언니는 근처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새언니가 이제는 가족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희망에

정말 기쁩니다.

이번 훈련에 제 남편도 1단계 훈련생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인 남편은 그동안 안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새로 거듭난 새 신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꼭 이 교육을 다 받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하시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니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김지연 성도 _ 고양·파주교구, 2그룹 3단계 4조



초대합니다

2022년 하반기 전도훈련학교


토요반: 2022.9.3-12.3(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화요반: 2022.9.13-12.6(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훈련비: 3만원
훈련방법: 온라인, 줌(zoom)

신청방법: 영락교회 홈페이지, 주보광고 QR, 베다니광장 부스
전도부 사무실(기념관 6층, 주일 오전)

신청기한: 토요반: 2022.8.24(수)
화요반: 2022.9.4(주일)

문의: 토요반(010-7492-0624)
화요반(010-3354-3835)

신청 QR



대안예수교 영락교회
전도부 전도훈련팀

일상의 고민 나누며 함께 성장

즐거움이 가득한 청년부

새 신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기도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만을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해야 할까요? 몇 년 전 직장동료들의 전도로 영락교회에 새 신자로 출석하면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이내 최재선 목사님 설교를 시작으로 감사함으로 바뀌며 청년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활동의 꽃은 단연 부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든 소모임이 있겠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좋은 조장과 조원들을 만나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별 나눔을 통해 성경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일상에서의 고민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교회에서의 시간이 점점 짧게만 느껴지며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는 친구들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놀이터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TV에서 방영된 디즈니 만화 동산만큼이나 교회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신앙생활

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답답한 곳으로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교회와 멀어졌던 나를 돌아와서 정착하게 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도와준 영락교회 청년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로 돌아와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청년부 등록을 망설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고민을 멈추고 함께 즐겁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믿음을 키우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남**



방 주 성도
청년부 주는나무

릴레이 금식기도로 하기 선교 봉사 준비

무더위와 장대비는 청년부를 충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복음을 떠올릴 수 있는 형형색색의 팔찌와 칫솔 세트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평일과 주말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공동체가 꾸려지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MBTI를 활용하여 각자의 성향과 강점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가 쌓이면서 소향교회·청라중앙교회·성주성광교회 등 현지 교회별 맞춤형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탄력을 받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표현하는 내용의 연극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눈에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맺혔고,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만 누릴 수 없다는 마음도 흘러넘쳤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과 말씀 묵상으로 충남 땅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면서 선교의 사명을 다졌고, 특히 토요일 경건회에서는 모든 팀이 다른 팀을 위해 중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미용과 연장 연마 및 워십 댄스 등으로 함께하는 신앙의 선배님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전투를 위해 영웅들이 총집결한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든든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후배들의 선교 활동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충청지역에 비가 쏟아진 탓에 사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선교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힘입어 평안함을 되찾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영락의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나광호 성도
청년부 모리아 지기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스포츠 동아리로 ‘소통의 장’ 꿈꿔요!



2030 세대가 가장 즐기는 스포츠 활동을 꼽자면 단연 ‘테니스’와 ‘클라이밍(암벽등반)’이다. 둘 다 실내에서도 가능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데다,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에 ‘취미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클라이밍’과 ‘테니스’ 동아리가 있다. 팬데믹 이후 결성하여 갓 시작한 따끈따끈한 모임으로 활발한 교제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클라이밍 모임을 이끄는 안태진(34) 청년과 테니스 모임을 이끄는 신승원(31) 청년을 한자리에서 만났다.

안태진 성도
클라이밍 회장
주는나무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스포츠 동아리가 있다는 소식이 무척 반가운데요! 우선 동아리 정기 모임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주세요.

안태진(클라이밍) : 저희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종로5가역 부근에서 모이고 있어요.

신승원(테니스) : 보통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 서울 근교 테니스장을 예약해서 모이고 있어요.

신승원 성도
테니스 회장
꿈꾸는땅



한 번에 대략 몇 명 정도 모이나요?

안 : 전체 14명의 인원 중 평균 절반 정도가 참석하고 남자 성도가 7대 3 정도로 조금 더 많아요.

신 : 저희도 6대 4 정도로 형제분이 좀 더 많아요. 전체 인원은 대략 15명입니다. 하기 선교 때문에 정기 모임은 잠시 쉬고 있고요, 9월부터 다시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두 동아리 모두 올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작했는데요.

동아리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안: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영락교회에 다녔어요. 고등부 때는 호산나찬양대, 대학부 때는 소그룹 리더와 간사로 활동했고, 청년부에서는 회장단을 맡기도 했어요. 지금은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만큼, 자연스럽게 코로나 이후 우리 청년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다시 자연스럽게 초청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 특별한 모임을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초대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신: 저도 소위 말하는 ‘영락 키즈’ 출신이에요. 계속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에서 활동했습니다. 리더도 꾸준히 맡으면서 또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즐겁고 건전한 활동을 고민해왔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학교나 대학원에는 동아리가 있고, 직장 내에는 사내 클럽들도 있는데, 교회처럼 열린 공간에 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을까’라고요. 같이 테니스를 즐기고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시작했죠.

특히 많은 스포츠 가운데 왜 ‘클라이밍’과 ‘테니스’를 선택하셨는지요?

안: 클라이밍이라는 운동 자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운동하고, 그 과정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은 전신 강화 운동이고 중독성도 있을 만큼 운동 자체가 매력이 넘쳐서 함께 재미를 나누고 싶었어요. 특별히 요즘 허리 아픈 신 분들이 많은데 허리 강화에도 좋고요.

신: 테니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서 선택했어요.

두 동아리의 활동,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안: 온종일 힘써 일한 뒤 함께 운동하면서 소중한 휴식 시간을 공유하는 만큼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나 불신자들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 저는 테니스 동아리를 청년부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년부에 영락 테니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를 통해서 장년과 청년, 친구 조화를 이루고 연합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고 싶어요. 오는 9월에 2차 회원 모집 들어가는데 스포츠 동아리를 통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만남**



이현지 성도
호산나찬양대
홍보출판부 기자

사도 빌립의 순교지 히에라볼리



파묵칼레는 산의 경사면을 따라 만들어진 계단식 자연온천으로 유명하다

거룩한 도시(Holy City)라는 뜻을 가진 히에라볼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사도 빌립의 순교지로 전해지고 있다. 히에라볼리는 골로새교회로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끝부분에 에바브로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구절에 나타난다(골로새서 4:13).

에바브로 디도는 골로새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에라볼리는 <목화 성(Cotton Castle)>이라는 뜻의 파묵칼레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파묵칼레 온천수의 약효를 얻기 위해 찾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기원전 2세기 무렵 안티오쿠스 대제가 바빌론과 메소

포타미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기원전 62년경에는 유대인 공동체 인구가 5만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에 남아있다. 히에라볼리는 남서쪽으로 라오디게아, 남동향으로 골로새와 함께 삼각형 모양으로 브루기아 지방의 주요 도시를 이루고 있다.

파묵칼레는 히에라볼리 언덕 아래 지역으로서 이스탄불, 갑바도기아와 더불어 터키 3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묵칼레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서 터키의 동쪽 내륙으로 데니즐리주의 석회암 산악지대에 있다. 탄산칼슘을 함유한 따뜻한 온천수가 단층 작용으로 형성된 산악지대 경사면을 따라 오랫동안 흘러내리면서

많은 온천이 만들어졌다. 땅 표면을 목화와 같이 하얗게 뒤덮고 있어서 목화 성이라는 도시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지리학적으로 아주 희귀한 현상이라고 하는 이곳의 온천수는 섭씨 약 35도로 피부질환에 좋다고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요한계시록 3:15~16)’ 표현은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흘러 라오디게아에 이르면 미지근해지는 현상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파묵칼레에 얽힌 전설에 의하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못생긴 처녀가 죽기를 결심하고 테라스 형태의 언덕 아래로 몸을 던졌는데, 온천물이 고인 층에 떨어진 처녀는 상처 하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여 이 지역의 영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렇게 특이 지형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풍광과 언덕 위의 고대 로마 유적지 히에라볼리를 합쳐서 1988년 유네스코는 세계 복합문화 유산으로 지정했다.

사도 빌립의 순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빌립은 말년에 딸 미리암과 열두 제자이자 친구인 바톨로매와 더불어 당시 커다란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지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고로 유대 지방의 유대인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세 번에 걸쳐 일으킨 중요한 항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이 A.D. 66년에 발발했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저항군을 진압했다. 반란에 패배한 유대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히에라볼리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가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A.D. 80년에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브루기아의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브루기아 총독의 아내, 니카노라는 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 빌립이 그녀에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울며 말하기를 “나도 유대인이니 나의 모국어로 복음을 이야기해달라” 하는 순간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한다. 총독은 사도 빌립이 자기 아내를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분노한 총독은 빌립과 바톨로매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처형하도록 명령한다. 총독의 지시를 받은 군사들이 빌립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자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군사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그때 빌립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자 지진이 잠잠해졌다. 이에 군사들이 빌립을 십자가에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빌립은 거부하고 바톨로매를 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바톨로매는 살아남았고 빌립은 기원후 80년에 85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기원후 2세기경 히에라볼리를 관장하는 에베소 주교, 폴리크라테스가 교황 빅토르 1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열두 사도 중 사도 빌립이 히에라볼리에서 그의 두 딸과 함께 순교했고 또 다른 딸은 에베소에 묻혀있다”라고 기록했다. 사도 빌립이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한 사실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빌립의 무덤과 기념교회 유적 발굴

기독교인들은 빌립이 순교한 히에라볼리 언덕에 빌립의 무덤을 만들었으며, 기원후 5세기 무



사도 빌립의 무덤과 삼각지붕교회



럽에 빌립의 무덤 바로 위에 비잔틴 양식으로 삼각 지붕의 교회를 건축했고, 아울러 둥근 지붕(dome) 형태의 순교 기념교회도 건축한 것으로 전해져 왔다. 그러나 1354년 3월 2일, 엄청난 규모의 트라키아 대지진으로 인해 히에라볼리는 땅속으로 묻혀버렸다. 그 후에 오랫동안 석회암이 뒤덮기 시작하여 히에라볼리의 유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갔다. 히에라볼리 유적 탐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19세기 이후, 1957년에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의 파올로 베르조네 교수가 발굴 작업을 시작하여 둥근 지붕 형태의 〈빌립 순교 기념교회〉 건물의 유적을 찾게 되었다. 순교기념교회는 교회 건물 내의 중심내부로부터 영원함을 뜻하는 8각형 모양으로 펼쳐지고, 각 방향으로 네모 모양의 방이 있으며 다시 28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빌립의 순교를 기념하여 찾은 순례자들의 숙소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굴에도 불구하고 기원후 1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사도 빌립의 무덤을 찾는 노력은 번번이 허사가 되었다. 폐허만 남은 히에라볼리 유적 현장의 순교기념교회 옆에는 황량한 석회석 돌산만 있는데, 당시 고고학자들은 그 밑에 별도의 교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30년에 걸치도록 사도 빌립의 무덤을 찾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던 중, 이탈리아 남부 레체에 있는 살렌토 대학(University of Salento)의 프란체스코 단드리야 교수가 이끄는 발굴팀이 리치먼드 박물관에 소장된 빵 스탬프(Bread Stamp)를 기억해 내고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사도 빌립의 빵 스탬프

수백 년 전에 히에라볼리에서 습득된 유물로서 지름 10.5cm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사도 바울의 빵 스탬프(p.23 작은 사진)’는 미국 버지니아주 리



히에라볼리 언덕에 세워진 그리스식 원형극장

치몬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스탬프를 살펴보면 사도 빌립이 큰 빵을 들고 있는데, 이는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상징한다. 빵 스탬프는 사도 빌립을 기념하여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나누어 줄 빵을 구울 때 빵 표면에 무늬를 찍는 도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스탬프의 오른쪽에는 둥근 지붕에 팔각형 구조로 펼쳐지는 순교 기념교회 건물이 있고, 왼쪽에는 비잔틴 양식의 삼각형 지붕 형태 교회가 사도 빌립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으며 교회 입구에 성자(Saint)의 무덤을 안내하는 상징인 램프가 매달려 있다. 스탬프 둘레에는 “거룩한 주여, 강한 주여, 불멸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리스어 글자가 새겨져 있다. 빵 스탬프에 근거하여 순교기념교회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무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1년 8월 순교기념교회에서 36m 거리에 있는 거대한 석회석 돌산을 파헤쳐서 사도 빌립의 무덤과 무덤 위에 있는 교회의 유적을 찾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빵 스탬프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히에라볼리의 다른 유적으로는 로마의 개선문, 1,200개 석관의 공동묘지 즉 네크로폴리스(Necropolis), 로마식 목욕탕, 그리스식의 원형극장,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문, 히에라볼리 성벽 등이 있다.

예수님과 사도 빌립

빌립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제자이지만, 예수님과 처음부터 동행한 제자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에 이어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로 소개된다(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음 다섯 번째 빌립을 언급하고 있어 복음서 사이에 차이가 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말(馬)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말의 친구’라는 뜻이 있는 그리스식(희랍어) 이름이다. 유대 지방 벳새다의 보수적인 유대인에게는 흔치 않은 이름인 점에서 빌립의 집안은 개방적인 배경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중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입성 후, 그리스인(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다가와 예수님 뵙기를 청하고,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쭙는 장면을 미루어 보건대(요한복음 12:21) 빌립은 그리스인들과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한복음 1:43),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메시아를 기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도. 지금의 터키 서남부지방 히에라볼리(붉은 원)에서 12제자 중 한명인 빌립이 순교했다.

다리고 있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메시아를 찾았노라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을 미루어 보건대, 빌립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람이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바돌로매가 나다나엘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바돌로매는 돌로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본래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 바돌로매는 신약성서에서는 사도들의 명단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빌립의 터키 히에라폴리스 순교 현장에서 빌립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빌립과 평생을 함께 친구로 살아온 것으로 짐작된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처음 만난 순간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요한복음 1:48) 하는 말씀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요한복음 1:49) 라고 대답한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처럼 나무 아래의 특정한 장소에서 묵상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깊이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았노라 하신 것으로 깨닫지 않았을까. 나다나엘은 자기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토록 갈망해온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요한복음 1:50~51) 하시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라반이 있는 밋단아람으로 가는 길 벧엘에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광경을 비유하며 말씀하신다.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을 소개한 후, 다음날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참석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요한복음 2:1~11). 이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에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한복음 6:5~7)하시면서 빌립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으로 부족하리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3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함께 했던 제자 중 이름을 명시한 핵심 제자임을 알 수 있다. 빌립은 의심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흔들림 없는 확고

한 믿음의 사도로 성숙하게 된다.

빌립은 <가나의 혼인 잔치>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한 것으로 나온다. 그 후 최후의 만찬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자마자 빌립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한복음 14:8) 하면서 예수님이 실망하실 정도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부활 후 40일째 되던 날 성령 강림에 대해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에게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전해들은 이후 복음 전파에 평생을 헌신하게 된다(사도행전 1:11~13).

사도 빌립은 스테반의 순교 이후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라는 계시에 이끌려 예루살렘 남쪽 가사(Gaza)로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예수님을 전파한 후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소도에 나타나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지냈던 기록이 성경의 마지막 행적이다(사도행전 8:26~39). 빌립의 여러 행적으로 미루어 보면, 사도 빌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과 영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후 갖은 시련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간 사도이다. <끝> **만남**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 사진 김한기 은퇴집사

1. 들어가며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혐오주의자, 또는 '일부 보수기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소수의 극단주의자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손가락질로 인해 그리스도인인 우리 스스로 차별금

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주춤합니다. '이웃 사랑'은 분명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 윤리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사랑'과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법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통해 기독교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남윤재 목사
산지교회

2. 교회는 동성애자들도 '사랑'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적지향의 원인은 개인별로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어린 시절의 강제적 성행위, 가정환경, 성장배경 등 그 원인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

의 동성애 성향이나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살 때 역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소매치기단에게 끌려가 평생 소매치기로 살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배운 것은 소매치기뿐입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누구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소매치기가 '죄'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정법으로는 소매치기를 절도죄로 처벌해야 하지만,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동성애자는 어린 시절 남성에게 강간당한 이후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 동성애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책임을 묻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친구약 모두에서 일관되게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점에 관해서는 굳이 세상과 토론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성경을 주제로 토론으로 이해 시키는 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소매치기법을 사랑한다면 그가 다시는 소매치기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동성애라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잔인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늪에 빠진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는 모든 죄인을 사랑합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 사랑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3.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 법제화의 본질적 문제

동성애와 다른 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죄는 자신이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습관에 의한 것이든 환경에 의한 것이든 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식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물론,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듯 동성애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은 동성애의 죄성을 부인합니다. 죄가 아니니 회개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회개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성애 코드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유독 동성애 법제화를 심하게 밀어붙이려 합니다.

만일 저들의 의도대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등이 법제화된다면, 실정법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법제화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는 환경으로 인해, 무분별한 동성애의 죄 상태에 놓일 많은 젊은이가 죄로부터 빠져나올 회개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사다리를 거두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늪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늪으로 끌고 와 던져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은 참으로 잔인한 법이고,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자도 사랑하여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4. 동성애자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관점에서의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향해 'out'이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



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돌려보냈다'라는 사례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선교자의 자녀인데 20년 동안 레즈비언 커플과 동거했습니다. 상대방이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로 이끌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들이 동성애자인 것이 괴로워서 교회 소그룹에서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그룹 성도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라도 말해주어서 고맙다'라며 함께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거주와 경제의 분리를 도왔다고 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 대한 교회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관심과 격려,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동성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도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시 동성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간증의 자매는 간증하는 순간에도 동성애의 욕구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렵습

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5. 결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불순한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상을 업신여기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저항받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동성애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를 두고 '혐오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동성애 법제화가 세상의 트렌드라고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세상의 트렌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미래밭이라고 해서 세상의 빛인 교회가 그 불빛을 끄고,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그 맛을 잃는다면 교회가 아닐뿐더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더는 죄짓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혐오주의자라고 불린다 한들 우리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남**

함께 책 읽으며 상담효과를 높입니다

- 기독교 고전 함께 읽기

밝고 건강한 신앙을 꿈꾸는 명랑상담입니다.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고마비(天高馬肥),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라는 가을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말과 함께 우리는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추수가 끝나 풍요롭고 여유 있는 상황,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절한 좋은 날씨에 시간을 보내는 가장 유익한 것이 책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영락교회에도 참 많으십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는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이라는 보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담에 있어 책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담에 있어 책의 활용은 숙제의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성경적 상담학자로 유명한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상담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만남 전후에 다양한 숙제를 활용하여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상담자 안내서(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진행하는 상담에 있어 우리는 상담자인 자신과 내담자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숙제로 증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내담자의 상황에 관련한 새로운 통찰
- ② 위로와 지지의 지속성
- ③ 새롭고 유익한 습관 형성 도출
- ④ 상담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 확보
- ⑤ 의사소통의 새로운 매개체
- ⑥ 지시적 상담의 지양

위와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 활동에 제공합니다.

상담에 활용하는 숙제는 보통 심리검사(MMPI, TCI, MBTI, SCT 등)를 지칭할 때가 많지만, 저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면 일상의 다양한 도구가 발견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의 경우 상담에 있어 심리검사와 함께 내담자에게 상담과 관련한 책을 소개하거나 함께 읽으면서 상담 과정에 도움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그렇다면 책이라는 숙제를 활용한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담은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책을 활용하는 것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하면서 지식 전달과 교수(敎授)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성장과 상담 활용을 위해 지속해서 상담과 관련해서 독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적 상담을 위해서 성경을 충분히 읽는 것처럼 책을 읽고 가까이 둬으로써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두면 상담 활동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상담 활동에 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첫째,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책을 용기를 가지고 선정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상담자 자기 생각과 가치, 상담의 방향성에 100% 일치하는 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내담자에게 완벽하게 맞는 책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활용한 책은 상담자가 충분히 숙지해서 그 책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지향성, 장점과 약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앙적 위치까지도 미

리 내담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행여나 독서 중에 발생하는 내담자와 저자(著者)와의 충돌은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양한 책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깊이 오래 읽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내용의 책에 앞서, 상담과 관련한 주제의 심도 있는 연구와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책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주 실용적인 책이 큰 도움을 줍니다.

약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심할 때만 찾아와 상담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본인의 요청으로 2주간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상담하여 12회 진행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새 명상의 씨(토머스 머튼, 가톨릭 출판사)』를 읽으며 묵상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도중에 이 친구에게 부분

상담할 때 읽으면 좋은 기독교 고전들



- ① 소설 읽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
(캐런 스왈로우 프라이어, 무근검)
- ②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토기장이)

- ③ 상처입은 치유자(헨리 나우웬, 두란노)
- ④ 아직도 가야할 길(스캇 팩, 울리시즈)
- ⑤ 새 명상의 씨(토마스 머튼, 가톨릭출판사)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13)



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 편해질 때 읽어 보라고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고통으로 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저의 예상과는 달리 내담자인 그 형제는 책을 톼툼이 읽으면서 성찰한 이야기를 상담 중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하는 내용이 참신하고 깊이가 있어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12회기의 상담이 끝나고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책을 읽고 나누는 동안에 상담자의 칭찬이 자신에게 회복의 초석이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자들은 기독교 고전(古典)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유행을 타는 설교집과 간증집이 흥내도 낼 수 없는 무언가가 기독교 고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최근 신앙적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전들을 소개한 『소설 읽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무근검)』을 참고할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 시간에 시편 읽기와 오스

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토기장이)』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헨리 나우웬 신부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두란노)』도 상담자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좋은 책입니다. 아주 유명하지만 읽히지 않는 스캇 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울리시스)』도 상담 과정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매월 『만남』 지면으로 제공되는 교역자들의 책 소개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삶에 우연히 찾아와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책이 상담 중에 문득 떠오른다면 주저 없이 좋은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상담 중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시오.

뜨거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만큼 귀한 책과의 만남을 이 가을에 허락하셔서 상담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욱 성장하고 삶이 풍성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명랑상담! **만남**

올 여름 중등부에 생긴 일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었던 현장 수련회를 3년 만에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겨울이 마지막이었던 수련회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선생님들과 교역자의 눈을 피해 밤을 꼬박 새우는 아이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대와 함께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음성이 확인된 참여자만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매일 아침 자가 키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기대와 염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던 현장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 지면으로 하나님께서 여름수련회를 통해 중등부와 아이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곽영진 전도사
고양·파주교구
중등부

기도의 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도의 끈입니다. 수련회의 프로그램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더라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행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중등부에서는 ‘50일간 릴레이 금식기도’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수련회 준비 기간에 빈틈없이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련회 준비기도회’도 가졌습니다. 함께 나눈 여러 기도 제목 중에도 특히 중등부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한 일정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오직 수련회를 위해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기에 더욱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수련회와 비전트립을 준비하던 중 영락 가족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 ‘일일 카페’를 진행했습니다. 일일 카페는 중보기도 제목을 적은 티켓을 만들어 전달한 뒤 티켓을 가져오신 성도님에게 학생들이 직접 음료를 대접하



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정말 많은 분이 일일 카페에 오셔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셨고 중등부를 위한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한 자리였지만 카페를 진행하며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온 교회의 사랑입니다. 이토록 많은 분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사랑과 기도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이 『만남』을 통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공동체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다음 세대에 사랑을 전하는 이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보내주신 끊임없는 지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가정의 끊임 없는 지지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참석을 결심할 때부터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순간에 가정의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가정의 지지를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수련회 출발하는 아침,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의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녀오고, 은혜 많이 받고 와!” 이러한 부모님들의 인사에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있었습니다.

학원, 공부 등 세상의 어떤 일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에서도 가정의 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수련회에 오지 못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집회를 실시간 유튜브로 송출했습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온 교회의 관심, 가족들의 무한한 격려와 기도로 준비했던 여름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가 있다면, 마지막 날 저녁 집회의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밥을 굶어가며 은혜를 사모하던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들이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교회와 가정에서의 지지와 기도를 통해 자라난 아이들은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충성된 종으로 구역을 섬기겠습니다

제2회 구역장대회가 지난 6월 24일 베다니홀에서 열렸습니다. 건강한 구역장의 리더십으로 건강한 구역을 만들자는 뜻을 품고, 우리 교회 18개 교구 1,119명의 구역장 중 520명이 참석(표1 참조)하여 많은 은혜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표 1〉

(단위: 명)

교구	참석	교구	참석
1교구	25	10교구	32
2교구	34	11교구	28
3교구	31	12교구	17
4교구	43	13교구	20
5교구	46	14교구	24
6교구	28	15교구	27
7교구	40	16교구	25
8교구	27	17교구	20
9교구	30	18교구	23



이일호 안수집사
인천교구
목양부차장

구역장대회 1부 예배는 김재훈 전도사의 준비찬양을 시작으로 목양부장 지동춘장로의 대표기도, 수원교회 허요한 목사님의 특강과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격려말씀 및 임명장 수여 그리고 축도로 마쳤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두 분의 구역장 사역보고와 안재후 복화술사의 공연, 목양부 박지운 목사님의 인사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섯, 둘, 하나

성경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결산의 때가 있을 터인데, 나는 어느 편에 자리할 것인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겨진 자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로 인정받고 칭찬받은 한편, 한 달란트 맡겨진 자는 맡겨진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양부는 주님의 선한 목자 리더십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구역장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구역장의 섬김과 수고에 위로와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한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했으며 실행했습니다.



1,080명에 구역장 임명장 수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이니 (디모테전서 1:12)

할렐루야! 이번 대회를 통해, 올해 신임 및 기존
구역장(1,08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선
한 목자이신 예수님 닮은 목자로, 구역 성도들을
충성되게 돌볼 것을 결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
다. 신임제직자를 새로이 구역장으로 세워 파견

구역장(이웃한 구역의 구역장으로 섬김) 문제를
일부 해결했지만, 모든 구역에 구역장을 세우는
것은 향후 우리의 도전 목표입니다. 구역장님들의
손길로 구역이 화목하고 건강한 구역으로 세워져
모두 10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들께는 김운성 목사님이 격려의 글을 쓰
고 서명한 책 『다시 사는 삶』을 선물로 드렸습니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역장 성함을 출력하여
책에 붙일 때, 목양부 임원들은 한 분 한 분 성함
을 부르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닮아 좋은 구역
장님으로 건강한 구역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
하며 작업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이 끝나고 18개
교구별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 한 곳을
바라봅니다. 모두 편안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 자
리는, ‘서로 따로’가 아닌 ‘서로 함께’에서 오는 평
안함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고 베풀고 손잡
아 주는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로! 생명체의 결합



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공동체로! 구역을 세워 나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김운성 목사님은 18개 구역의 사진 촬영에 장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문화공연 '깡여사'

복화술공연 '깡여사'라는 캐릭터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함께 웃으며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세대를 초월한 접근 용이성과 함께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감동이 오랜 시간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우리도 역시 가족구성의 모습에서 보듯이 공동체로 존재 합니다. 공동체 중에서도 유기체(생명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4~47)

구역공동체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생명체로서,
 ■ 상호협력 ■ 상호책임 ■ 상호의존 ■ 상호참여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서로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함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구역을 이룹니다. 초대교회의 이해할 수 없는 매력적인 모습은 ‘서로 함께’의 모습에서 답을 얻습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구역은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구역장대회(모임)에서 얻고자 했던 것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위축되고 제한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구 관리 역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경험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구역공동체 리더십을 갖춘 구역장으로 인해 화목하고 건강한 구역으로 성장과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품어주어 함께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교회 부흥과 성장은 구역 식구를 리드하는 구역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구역원을 돌아보고 살펴서 생명을 구하며, 성장과 변화되게 하는일은 그리스도 사랑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의 은사라고 합니다. 사랑은 끊어진 것을 연결하여 하여 사랑으로 택정되고 부름받은 구역장님이 그

사랑을 실천해갑시다. 구역장님의 열정과 간절한 마음. 그리고 공홀한 마음이 선행으로 이루어짐을

알기에, 모든 구역장님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표 2〉 구역장대회를 통해서 얻고자 한 것, 얻은 것과 해야 할 것

얻고자 한것은	건강한 교구, 화목한교구/구역활성화의 계기
	구역장리더십 함양
	교구 조직 유기체적 결합(협업) - 자치단체 대회 참석(공문발송)
	섬김자로 선임작업
얻는것은	임명장 수여로 사명감 책임감 확인 및 결심
	위임 목사님의 격려 - 구역장 전원에게 친필서명한 저서 전달
	신입 재직자 구역장 임명 - 구역장 리더확보
	복화술 공연 문화적요소, 선교적 접근
	구역조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야 할 것은	구역장 조직을 통한 설문조사-참여율 및 행사 진행 예측분석
	교구 전도사님들과의 소통
	행사 자료 사진 준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
	대회의 용어 선택 고려
	외부강사 의견(주차장 확보) 등

남기는 말

구역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목양부 임원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함께, ① 세례를 베풀라 ②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대위임령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목양의 최일선에 계신 구역장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구역원을 생각하며 내딛는 걸음걸음이 주의 길(Road of Lord)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길이 주의 길이 됩니다.

손 모아 올려 드리는 모든 기도에 선하신 하나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시길 바라며, 내년 3회 대회 때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초보 구역장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도

2019년 권사 직분 받자마자 생소하기 그지없는 구역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역 분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대부분 통화가 안 돼서 눈물 한 컵(?)을 흘리며 당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무작정 『만남』지와 구역원들에게 드릴 선물을 바퀴 달린 가방에 싣고 저녁 8시부터 어둑해진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의 집은 신도시 1단지였고 배정 받은 가정들은 3단지부터 9단지까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초행길이고 어둑해서인지 어느 넓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의 1시간을 헤매고 간 집에서는 얼굴도 안 보고 우편함에 놓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상냥한 목소리로 선물 있다고 말하니 다행히 문을 열고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기도 제목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집은 밤 11시가 넘는 시간이었는데도 다행히 오라고 하셔서 방문하니, 몇 년 전에 이사 오신 권사님으로 늦

은 밤 깜짝 놀라셨다며 우리가 이제는 구역모임으로 모여서 『만남』지를 받아야겠다고 하시며 마음을 여신 것을 계기로 드디어 봄부터 구역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첫 구역예배 인도라서 말도 더듬고 권찰 공부 때 받은 구역예배 양식대로 인도하는데,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도 없으셨으며 나눔 시간이 부담스러운 듯한 표정들로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 당혹스럽다며 전에는 이렇게 구역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교회에서 받은 양식이 있으니 양식에 맞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도 구역예배 양식대로 인도하며 이어갔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초보 구역장이라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구역 분들 집에서 돌아가면서 구역예배 드리기’, ‘말씀 나누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 문 열기’를 위해 카카오톡 친구들 캐릭터 모양의 동전 지갑 파우치 등을 준비했습니다. 나눔 질문에 답변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는 이벤트를 하니 구역 분들이 눈을 반짝이며 즐겁게 참여하시며, 말씀 본문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구역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시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황정숙 권사
용인·화성교구 37구역장

방법에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인지 은혜롭고 좋아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모두가 말씀하시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후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찻집에서 차도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식탁 교제 시간을 통해 친근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봄부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문이 닫히고 구역모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만남』지와 작은 선물을 봉지에 넣어서 현관 문고리에 걸어놓고 사진 찍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프린트해서 보면서 거의 매일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 문자를 보내면 구역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답변을 받을 때마다 힘이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오이코스 영상을 보내드리면 잘 보고 있다고 전화 주시거나, 오이코스 책 언제 나오냐고 빨리 가져다 달라는 은퇴권사님의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또한 구역 카톡방에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 구역원들이 기도하시겠다고 힘을 실어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아팠던 가족 분이 회복되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구역 권사님의 제안으로 은퇴권사님 두 분도 동행하여 자가용으로 구역 분들의 아파트에 가서 권사님들은 차에서 기다리시게 하고 『만남』지를 문에 걸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엄격할 때 몇 번은 마스크나 간식 넣어서 우편으로 『만남』을 돌렸습니다. 몇 년 전에 새로 등록하신 구역 분에게 『만남』을 전달하러 갔을 때도 한번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몇 주 전에 교회



행사에 참석하셔서 처음 뵙고 대화하던 중 『만남』을 꼬박꼬박 가져다주어서 고마웠고, 전화해 주어서 힘이 되었다고 하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역 분들과 나눈 정이 원동력이 됐는지 서울로 이사했어도 여전히 같은 구역을 구역장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한 장소에서 목사님 포함 9명이 함께 대심방으로 예배드리고 별도의 방에 한 분씩 들어가셔서 교구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도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구역모임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만남』을 직접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역 분이 계시어서, 그러면 구역장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또 『만남』을 전해드리며 얼굴도 봐야 한다고 했더니 미소 지으시는 구역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남**

3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안녕하세요! 마음으로는 청년부 소속이 되고 싶지만, 현실은 중년부인 43살 평범한 직장인 이성규입니다. 저를 새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간증의 시간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영락교회에서 친절하게 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도와주신 새가족부 섬김이들, 저의 아기를 밝은 미소로 환영해 주신 유치부 전도사님, 야곱반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 회사 부장님인 송 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15년 전 회사에 입사하고, 10년 전에 결혼하여,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20살부터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무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스트레스받는 일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5살부터 골목에서 함께 뛰놀며 친하게 지낸, 모태 신앙이었던 친구를 따라 동네 교회에 처음 갔었던 기억



이성규 성도
성동·광진교구

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10살 정도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했으나, 어린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기회였는데, 일요일 아침에 하는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느라 교회를 지속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질풍노도의 중학생 시절을 보내고, 중구 만리동 고개 꼭대기에 있는 환일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환일고에 입학해 보니 미션 스쿨이었으며 매일 아침 10분간의 예배, 매주 월요일 1시간의 예배, 매주 한 번 성경 수업 시간이 있어서 성경 선생님께서 성경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반강제적으로 3년간 매일 아침, 매주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가 합창대회를 하면서도 신앙심은 생기지 않았고 주일에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학생이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 친구 중에 신앙심이 깊은 친구의 기도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한테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그 친구로부터 제가 이해할 만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에 5시간을 자면서 나머지 19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공부와 성적에 대해 간절했고 공부가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고3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밤 11시 30분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 막차 버스를 탑승합니다. 평소에는 머릿속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하며 집으로 갔지만, 그날은 버스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고3 스트레스로 인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고등학교 3년 내내 아침마다 하는 예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고 나니 힘들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을 기회였습니다.

그 후로 20살부터 대학교, 군대, 취업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평범하게 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고3 때 기도드린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에 다닐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추운 겨울에 회사에서 저를 많이 도

와주시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 송 집사님의 추천으로 김운성 목사님의 부흥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부흥회라서 퇴근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3일간의 부흥회는 20년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했으며, 그동안 마음 한쪽에 자리하던 찝찝한 마음이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또한, 김운성 목사님의 부흥회 '멸망에서 영생으로'라는 설교 말씀 중 돌아가신 부모님의 짐을 정리하는 내용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앞으로 저에게 남은 인생, 제 아들의 살아갈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고,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는 다른 교회에서 드리고, 교회는 영락교회를 다니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3번째 기회를 잡아 이렇게 간증도 하고, 영락교회의 좋으신 분들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20여 년 전 고등학교 친구가 했던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더 깊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 당시 그 친구가 했던 기도가 이해되었지만,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 영락교회 새가족부, 유치부, 송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저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이 악물기, 이갈기, 부딪힘은 턱뼈 이상을 부릅니다

턱뼈 이상 기능이란 악물기, 이갈기, 입을 놀리는 버릇, 뺨(볼) 안쪽을 빨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파이프를 항상 입에 무는 등 다양한 입 동작을 가리킨다. 이런 동작들은 저작(咀嚼-음식을 입에 넣어 씹음), 연하(嚥下-음식을 꿀꺽 삼켜서 넘김), 발음 등의 기능적인 동작과는 달리, 목적 없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비기능적인 동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에 후유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주위 조직과 턱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갈음(Bruxism)

치아 교합면 위에서 지속해서 깨무는 동작, 깨물

면서 전후좌우로 아래 턱을 움직여 마찰음을 발하는 동작, 상하 치아를 빠르게 접촉하는 동작으로서 악물기(Clenching), 이갈이(Grinding), 부딪힘(Tapping)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1. 악물기(Clenching)

상하 치아를 강하게 깨무는 동작은 분노, 고통 등의 감정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의 긴장이 높아져 생긴다고 하는데 이 동작은 야간보다 낮에 많고 대부분 무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악물기는 치아 위쪽(치아 교두) 부근에서 이루어지며 아래턱뼈는 대부분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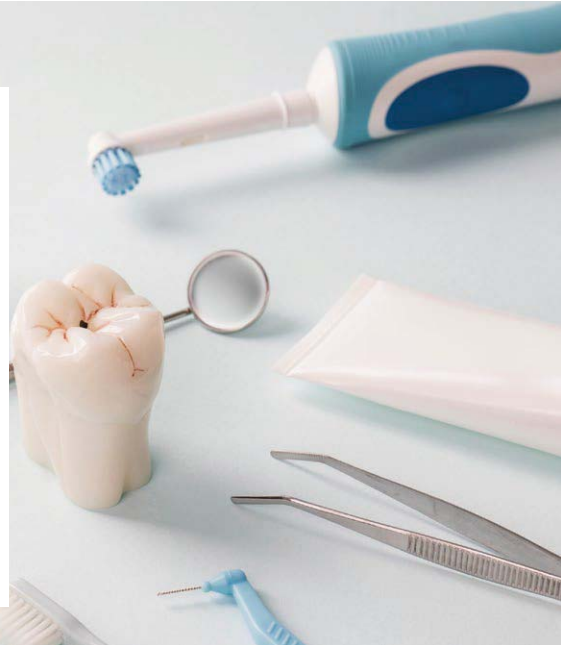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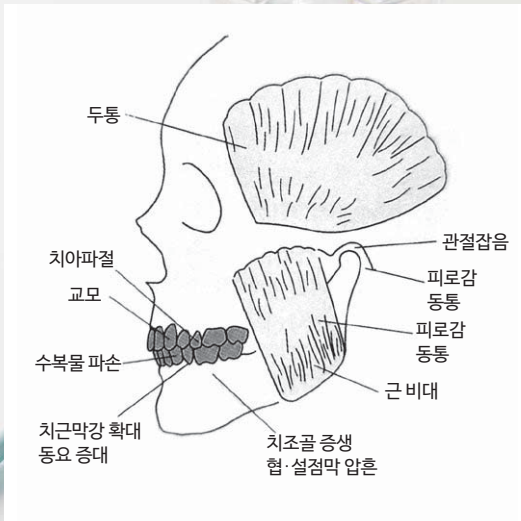
2. 이갈기(Grinding)

보통은 수면 중에 치아 교두뿐 아니라 다양한 교합 부위에서 일어난다. 아래턱뼈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치아를 서로 닿게 하는 그라인딩의 형태로서 아래턱뼈는 먼저 다양한 위치에서 치아의 접촉을 찾아 이동하다가 어느 곳에서 잠시 약한 마찰 운동을 하고서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그 위치 혹은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마찰 운동을 한다. 그러나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의 긴장이



김가영 은퇴권사
서초교구
의료선교부
치과의사

이갈음(Bruxism)이 악구강계 조직에 미치는 영향



항진했을 경우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 즉 악물기(Clenching)가 일어나 치아 상하면에 작용하면서 압력이 증대하고 이에 호응하여 아래턱뼈를 수평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강한 마찰 운동이 일어나고 치근막에도 커다란 압력이 가해진다. 이때 치근막에서 압력에 대항하는 제어 장치가 작용하지 않으면 병적으로 되어 치주조직, 치아 움직임, 턱 근육, 턱관절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3. 부딪힘(Tapping)

상하 치아를 연속적으로 부딪치는 동작인데 악물기(Clenching)나 이갈이(Grinding) 같은 실질적인 장애가 없는 것으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갈음(Bruxism)의 임상 기준 평가

1. 같은 실내에서 6개월 이상, 주 5일 이상의 이

갈음이 확인되는 것

2. 다음 중 1개 이상

- ① 교모(교합면 마모), 수복물의 Shiny Spot
- ② 기상 시의 근 피로감, 통증
- ③ 교합근의 비대
- ④ 이갈이가 1시간당 4회 이상, 1회에 6회 이상의 근방전 이동과 이갈이 음

이갈이(Bruxism)의 발현 빈도

치주병 환자를 대상으로 발현 빈도를 조사한 결과 약 57%에서 이갈음(Bruxism) 현상이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절반 악물기(Clenching)나 이갈음(Grinding)가 차지했다고 보고되었다. 그중 이갈음(Bruxism)을 자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30%였다는 것, 그것들이 기능 시에 턱관절과 근육에 통증을 갖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두부 안면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악물기(Clenching)가 72%, 이갈이(Grinding)가 47%였으며, 야간의 이갈이(Grinding)는 50%라고 보고되었다.

이갈이는 야간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면 중 근육 활동과 치아의 접촉을 동시에 문진한 결과 이갈이의 증상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빈도로 악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현 시간

최신 외국 Ikea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성인에서 보통 이갈이 지속시간은 10.1초, 시간당 3.1회~4.8회, 최대 악물기(Clenching)는 5초~8초 이하로 조사되었다.

나이와의 관계

연령층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에는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

은 층에서는 관절잡음(Clicking), 두통, 악물기, 개구운동 제한, 저작 장애 등이 나타났다. 소아들의 턱뼈 이상 기능 발현은 8~14세에 관절이나 안면 근육의 통증이 많았으며, 나이 구성으로는 20~30세, 50세 전후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2~4배의 발현율을 보였다.

이갈음(Bruxism)의 영향

야간 수면 시의 이갈음은 가벼운 경우 후유 장애를 가져오지 않으나 심할 경우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치주조직이 손상되고, 교합면이 마모되며 근육과 턱관절도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1) 치주조직의 장애

씹거나 아래턱을 움직이는 동작에 비해 이갈음은 무의식 중에 커다란 힘이 지속해서 가해지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최대 교합력 이상의 강한 힘이 가해진다. 치근막이 비 생리적인 압박과 자극을 받음으로써 치근막 섬유는 비이상적으로 늘어나고, 압박의 결과 혈류가 저해되고 대사 장애가 유발된다. 치주염이 있을 경우는 그 악화가 촉진된다.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조직 파괴는 주로 세균에 의하는데 이갈음이 더해지면 교합성 외상으로 작용하여, 더욱 심한 염증으로 발전한다. 치주조직이 건강한 경우에는 힘에 저항하도록 치조골의 증식이나 튀어나움이 발생하게 된다.

2) 교모(교합면 마모)

교모는 위·아래 치아접촉으로 인해 생기는데 이갈음은 교모에도 관계된다. 위·아래 앞니, 송곳니, 작은 어금니가 갈라지고 솟아난 부분등이 교합면에서 마모되며 이갈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치아의 교모가 치열 전체의 교합 접촉 관

계를 바꾸어 버리고, 이에 따라 턱뼈 구강계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교합면이 평탄해지며 접촉면적은 커지면 이로 인해 교합력이 가해져서 치아 흔들림이나 충전물, 치관 보철물도 마모되어 파손,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 근육과 악관절의 기능 장애

이갈음에서는 이상한 강도의 교합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아래턱뼈 운동이 생긴다. 악물기인 경우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여 위·아래의 치아면이 강하게 압박받으며 마찰하게 된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나면 각 근육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오랜 기간 계속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근조직의 손상, 근육통이 생겨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근육통에 대해 악물기에서는 동작을 멈추면 단 시간에 통증이 소실되지만, 이갈이의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약한 힘으로 이갈이하면 장시간 피로감이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악물기 쪽이 악구강계의 대한 병적인 영향은 더욱 크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밤 동안의 심한 이갈이는 아침에 불쾌감과 머리에 가벼운 통증을 가져온다. 오후가 되면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날 지속하는 경우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깨 결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병적으로 심한 턱뼈 기능이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4) 기타 이상 기능

낮 동안의 이갈음은 악물기의 습관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습관을 고치면 모든 원인은 사라진다. 이상 기능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뺨(볼)의 내면을 상하 치열 사이로 씹는 동작이나 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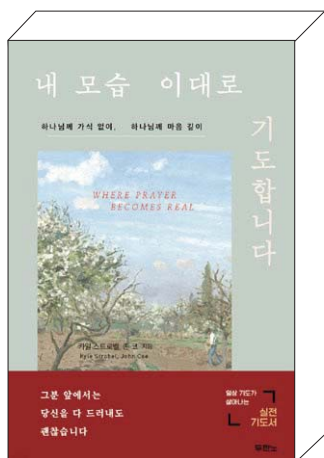
아들이는 동작으로 인한 위·아래의 볼 점막의 상처나 볼 쪽의 치열 요철을 따라 생기는 백선이나 점막의 돌출을 볼 수 있다.

입술을 옆으로 깨무는 동작, 입술을 심하게 당기는 동작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합 접촉의 불량이나 고르지 못한 치열, 보철물의 불량 등에 의한 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5) 치료법

기능적인 교합의 이상으로 생긴 턱관절과 근육의 이상 장애, 또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각종 증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합이 기본적인 치료이다. 따라서 교합 개선을 위한 진단이 확실한 경우 스프린트(splint)가 치료에 자주 사용된다. 스프린트(splint)는 몇 개의 종류가 있으므로 목적에 맞도록 선택해야 한다. 이갈음 증상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남**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식 없이, 하나님께 마음 깊이



카일 스트로벨, 존 코지움 / 정성목 옮김 / 두란노서원 / 2022년

진정한 기도는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시작됩니다.(로마서 8:26)’ 기도는 혼자, 나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책은 그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책을 열어 찬찬히 읽기 시작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을 거듭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는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를 힘겹게 하

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혹시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며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도는 수고로운 사랑의 행위이기에 명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기도 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30)’. 성령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부디 이 책이 그 일을 조금 더 순조롭게 만들어주길 원합니다. **만남**

함께 읽기 좋은 책

- 앤드류 머레이, 『하나님만 바라라』, 이종태 역, 생명의말씀사, 2008.
- E. M. 바운즈,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임종원 역, 브니엘, 2019.
- 팀 켈러, 『팀 켈러의 기도』, 최중훈 역, 두란노서원, 2015.



김윤기 목사
국제예배

춤(La Dance)

이 작품은 2년 전 주일예배 때 다윗의 춤에 관한 설교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작품으로 제작한 것이다.

왕의 신분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다. 부끄러움 없이 기쁨의 춤을 어린아이와 같이 표현하는 다윗의 몸짓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다윗의 춤은 '아무 때'나 '아무나'를 위해 춘 것이 아니다. 오롯이 여호와를 향하여 드리는 감격과 기쁨의 춤이었다.

다윗의 춤은 진심과 정성을 다한 제사의 피 위에 세워진 거룩한 예배이며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겸손으로 드리는 구별된 예배이다.

이 작품의 토대(Base)는 엮기(Tressage)이다.



두 장의 한지 위에 각각의 색을 입혀, 한 장은 가로로 다른 한 장은 세로로 찢거나 잘라 엮어서 중첩되어 작품이 완성된다. 다윗의 춤의 감동과 기쁨을 표현하려 붉은 색상을 사용했다.

찢어짐은 나를 낮춤과 순종을 뜻하며 다시 엮어짐은 거듭남의 소망을 의미한다. 두 장 각각의 색이 교차하며 중첩된 결과물은 두께를 만들고, 생성되는 색채는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만남**

노윤영 집사 _ 동대문·중랑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일반과정 대면교육 안내

일반과정

- 과목: [주일] 구약반, 신약반, 3040반, 영성의 깊은 샘 [수요일] 성경개론 / [금요일] 성경통독반

내용	시 간	반 명	장 소	강 사	섬김리더
주 일	11:40~12:30	구약반	봉사관 505호	조두형	고두선
	11:40~12:30	3040반	봉사관 504호	신대균	이두희
	12:30~13:30	영성의 깊은 샘	봉사관 지하	권혁일	윤의성
	14:40~15:30	신약반	봉사관 505호	이창조	홍성표
수요일	13:30~15:00	성경개론	봉사관 지하	남정열	문경숙, 김정숙
금요일	13:30~16:30	성경통독반	50주년기념관 503호	오병훈	이순옥

기간: 9월 4일~11월 27일

교회소식

news letter

제62회 산상기도회 “행진하여 가라” 온-오프라인으로 열려



목양부(부장 지동춘 장로) 주관으로 제 62회 산상기도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본당에서 대면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행진하여 가라’는 주제로 1차 7월25일(월)~27일(수) 림형석 목사(평촌교회), 2차 8월1일(월)~3일(수), 김서택 목사(대구 동부교회)를 강사로 진행되었다.

폭우와 35도를 넘는 폭염 경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5차례의 예배와 성경통독에 뜨겁게 참여하며 영과 육을 재무장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1차 림형석 목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어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께 축복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2차 김서택 목사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엘리사의 능력과 엘리야의 열정을 배워서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겸손한 믿음의 신앙을 깨달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한편 기도회 중 진행된 1,2차 성경통독은 고린도전.후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부목사가 인도하여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1,2차 기도회 기간에 환경시설부는 방역에 초집중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예배 환경이 되도록 최종 준비를 점검하여 만전을 기했으며, 총괄총무부, 환경시설부, 교통안내부, 생활부 봉사자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땀방울을 흘리는 봉사의 자리가 되었다. 1,2차 교인 참석은 1차 17,426명 온라인 3,364명 총 20,790명, 2차 18,948명 온라인 4,289명 총 23,237명으로 총 참석 45,000여 명이 참여했다(목양부 집계).

김운성 위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행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유혜정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2022년 제1차 전교인 건강세미나

의료선교부(부장 김경오 장로)는 7월 24일(주일, 오후2시), 봉사관 지하에서 '2022년 제1차 전교인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교회 임대현 집사(인하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전 알레르기비염 환경보건센터장)는 '알레르기 비염의 최신 지견 - 소아 청소년과 성인 중심'이라는 주제로 코의 기능과 현대사회의 급증하는 알레르기 비염의 종류와 주요 증상, 코감기(급성 비염)와 알레르기 비염의 비교 그리고 발생 원인에 인한 비염증상의 감별과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을 통한 치료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알레르기 비염은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 원인물질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통하여 환경요법으로 항원피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 환자맞춤형 약물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하며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애완동물, 식품 등 기타 다양한 원인의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절하고 환절기와 꽃가루 발생시기에는



특히 마스크 착용을 잘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의 후 교인들의 코 건강과, 비염에 관한 질의와 응답의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2022년 하반기(10월, 11월), 2회에 걸친 전교인 건강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며, 영락교회 『만남』에 매월 꼭 알아야 할 건강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자유인 후원약정식 “복음통일의 비전을 나누다”



자유인들이 복음통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지난 7월21일 봉사관 405호에서 북한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주관으로 후원약정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약정식은 2022년도 북한선교대회 특별헌금으로, 자유인 목회자(대성교회, 사도바울교회, 복음통일목회

자연구회장로회, 신학대학교 대외협력처)와 자유인 대안학교(한꿈학교, 우리들학교, 노뚝돌&통일센터)의 지원과, 추앙재단 후원금으로 준비된 자유인 신학생 장학금, 자유인 편부모 가정, 자유인 학생 교통장학금 그리고, 자유인 목회자 교회 등을 후원하였다.

이번 후원약정식을 통하여 자유인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돕고, 복음통일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며, 복음통일의 비전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예수로, 자유로, 하나로!” 복음통일을 향하여 함께 행한하기를 기도하며 기대해 본다.

제공 북한선교부

한경직목사 기념홀 개관



영락학원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설립자이신 한경직 목사님의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정신을 기리고 그의 신앙심과 인격을 후학들에게 전하기 위해 영락고/영락의료학과 교내에 '한경직목사 기념홀'을 건립하고, 지난 8월 16일 개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이사장 이영철 장로의 기도와 이사장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 영락교회 당회서기 김순미 장로의 축사, 영락의료과학교 정연 교

장의 경과보고, 영락고 김성식 교장의 내외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테이프 커팅식과 전시관 관람, 공사 중인 식당·체육관 공사현장 방문 등이 있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예수를 바라봅시다.'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한경직 목사님의 삶처럼 예수님을 비취내는 투명한 렌즈처럼 살 것을 당부했다.

제공 영락학원

교우동정

김충손 은퇴장로 국가유공자 표창

김충손 은퇴장로가 지난 6월 22일 용인시로부터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김 은퇴장로는 평소 나라 사랑을 실천해 시민 보훈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사회봉사에 앞장선 공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김 은퇴장로는 애국지사로 건국훈장을 받은 선친 고 김동순 장로의 뜻을 이어 은퇴 후에도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기금 후원, 영락고 일맥장학기금 후원, The Light Mission을 후원하며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2022

사회봉사의 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을 먹이라” 요21:15-17

2022년 8월 28일(주일) 영락교회

1. 사역 박람회 : 베다니광장 오전 8시~오후 4시

▶ 참여기관 :

강남드림빌, 거리의천사들, 사)경기글로벌센터, 금성의집, 금정희망의집, 내일의집,
다문화가족공동체, 다시서는집, 따뜻한밥상, 리플리히청소년오케스트라, 명동생명의숲,
바름이해피하우스, 뽀얏나눔공동체, 사랑의쌀나누기운동위원회, 세계교화갱보협회,
소중한사람들, 사)유쾌한공동체, 엘림아동센터, 열매맺는교회, 예사랑공동체,
예장노숙인복지회, 예함장애인선교회, 월드비전, 참좋은친구들, GWM센터 (가나다 순)

2. 세미나 : 기념관 503호 오후 2시 30분

▶ 강사 : 김한호 목사(춘천 동부교회)

3. 찬양예배 : 본당 오후 5시

▶ 강사 : 이승열 목사(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 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사회봉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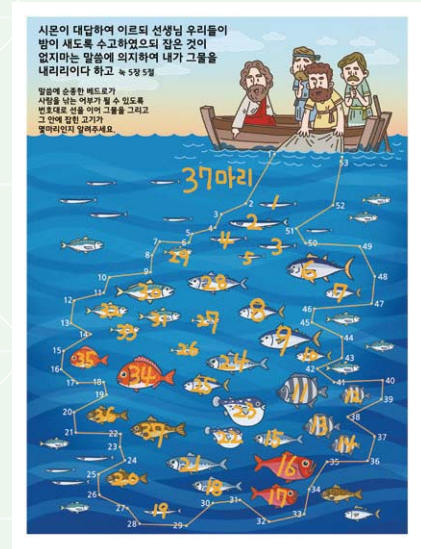
9월 목회력

2일(금)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하반기 개강
3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4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유아세례식
11일(주일)	제직회
18일(주일)	남선교회 헌신예배
23일(금)	심방준비회
25일(주일)	전교인 만남주일(간증주일), 다음세대 기도회, 사회봉사주일

※ 9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그물 속 물고기 숫자 세어보기



2022년 9월호 통권 583호

발행 2022. 9.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성수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인 미 임대현 정주리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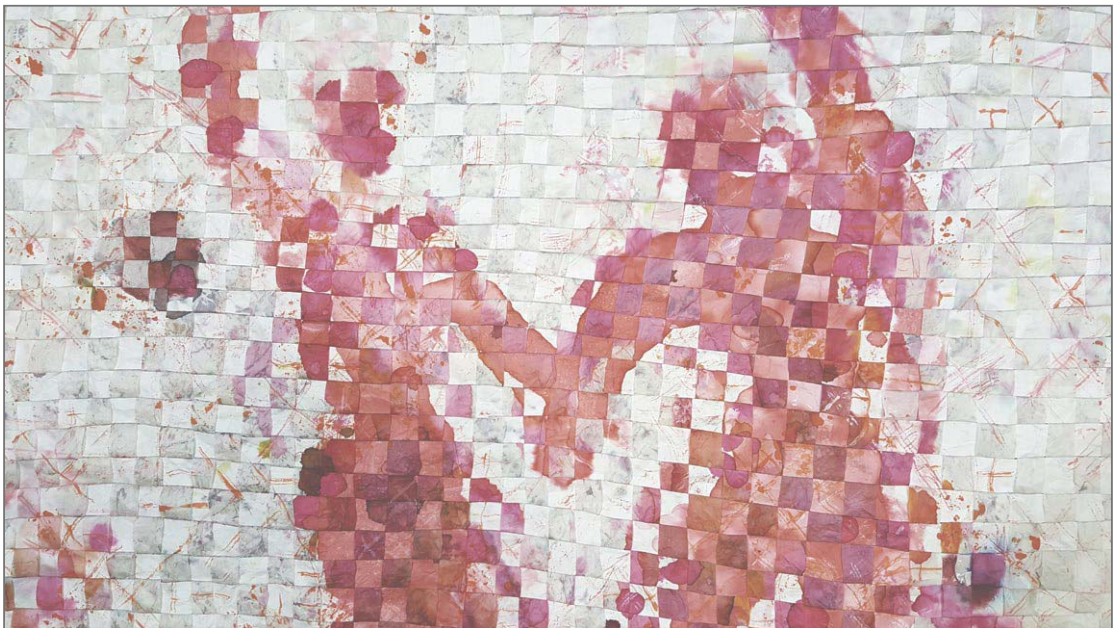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예배가 끝난 영이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신발들이 서로 어지럽게 섞여 있네요
영이가 쥐고있는 신발 끈을 따라 남은 신발 한 짝을 찾아주세요.



영락화랑

춤(La Dance)



노윤영, 60.5×80.5cm, Mixed Media, 2020년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와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궤를 메어오니라 (사무엘하 6:12b~15)